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집착 없이 사랑하려면...

**문** 스님께서는 오는 인연 따지 않고 가는 인  
연 붙잡지 않으며 집착 없이 살아가라고 말  
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모  
든 것을 놓는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저는 정  
말 진정으로 집착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좋아하  
고 싶은데 말입니다. 스님, 저희들의 좋아하고 싫  
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답** 애정 문제도 그렇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  
도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끄달려  
는 겁니다. 그 놓지 못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고, 또 그런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인연가 문  
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모두가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욕  
심으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걸 놓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  
다. 놓고 살아가 사랑할 거는 사랑하고 보살필  
거는 보살피고 다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끄달려

## 모두 나로부터 나오니 '자기의 탓' 들 아니게 봐야 두루 건질 수 있어

그리고 놓는다는 것까지 놓  
으라는 겁니다. '냈는데, 다 냈  
는데, 이걸 놔야지, 놔야지.' 이  
런 생각까지도 놓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  
다. 왜? 활용하고 만나고 사랑  
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건져주는 이치, 보는 이  
치, 듣는 이치 등등 전부 거거서 나오기 때문에  
놓지 않으면, 한 치 반 치도 놓지 않는다면 그 모  
두를 얻을 수가 없고, 그 모두를 놓지 못하면 나  
를 얻을 수가 없어서 나와 남을 둘이 아니게 볼  
수가 없고, 둘이 아니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가 네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이렇게 동시에 같  
이 사생을 두루 건지고 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  
다. 같이 만나야 행할 수도 있고 같이 들을 수 있  
어야 행할 수도 있고 같이 볼 수 있어야 행할 수  
도 있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나 그걸 알아야 행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가 있기 때  
문에,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나로  
부터 이 세상만사, 괴로움과  
외로움과 애착과 욕심과 사  
랑, 부처님이 있음을 아는 거,  
잘된 거 못된 거, 눈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  
러니 그 모두가 딱 사람의 탓이 아니라 자기의  
탓입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말입니다.  
만약에 잘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했지.' 이  
러지 말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잘했다

는 업식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업이 나  
오면, 이 세상 살면서 끄달리며 살기 때문에 잘  
한 것도 못한 것도 나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따  
귀를 맞아도 아무 소리 없이 빙긋이 웃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자기가 있으니까 맞았  
기 때문입니다. 벽이 있으니까 누가 벽을 쳤지,  
벽이 없는데 누가 벽을 칠 수 있습니까? 허공에  
다 누가 칠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  
한테 집착할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집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  
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 일체를 다 한군데다 집어넣어야 한 방에 되는 겁니다

##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은 없나요?

**문** 어차피 사나이 대장부가 칼을 뺏으면 하  
늘을 밟을 수 있고 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  
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검을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검을 만들려면 신검 만드는 재료도  
있고 망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장  
간, 대장장이도 있어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혼신  
의 힘으로 한 방 한 방 내려치라고 하시지만 한 방  
에 끝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그렇기 때문에 돈오돈수가 있고 돈오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오점수도 돈오  
돈수도 둘이 아니예요. 한 방을 내려치다 보면 두  
방이 한 방이요, 세 방이 한 방입니다. 수만 마차  
로 두들겨도 바로 한 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  
나하나의 숫자가 따로 없는 겁니다. 무시무종이  
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시무종이라 그랬고 일시무시  
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따지려  
고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 없는 공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다 하더라도 발자국을  
하나하나 세고 가나요? 첫 발의 그 시발점과 종점  
의 발이 들어던가요, 어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  
왔어도 일단은 한 발 한 발 걸어 딛고 오긴 했는데  
걸어온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여기 있을 뿐  
이고 저기 갔으면 저기 갔을 뿐이지 그 걸어온 거  
를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견 심성, 즉 말하자면 축지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견 천 년 삼천 년을 단축해서  
하루로 만들 수 있고 그 하루를 일 초로 단축할 수  
도 있습니다. 일 초를 찰나로 단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과거의 모든 업 풀어진, 그 입  
력된 거를 그냥 한꺼번에 한 방망이로 다 녹일 수  
가 있는 거예요. 한 방망이로 무조건 생기는 대로  
그냥... 아니, 한 방망이로 녹인다는 건 뭐냐 하  
면, 나를 형성시킨 놈도 그놈이고 지금 끌고 다니  
면서 하는 놈도 바로 그놈인데, 그 뭇 하나 내가  
잘못한다 잘한다도 없이 그놈이 안 하는 게 없잖  
아요. 안 하는 게 없더군요. 그 도리를 안다면 꺾  
꺾 꺾 하고 한 번 크게 웃어 보세요. 그렇게만 한다  
면 한 방망이로 그냥 그냥 녹이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잔뜩 먹고서는 체했다면 왜 이  
렇게 체하게 하느냐고 그러기도 할 겁니다. 그러  
나 그런 체할 정도로 그렇게 욕심을 내서 많이 먹  
은 내 탓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내 탓으로 들리  
지 않는단 말입니다. 욕심나게 많이 먹게 한 놈도  
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체하게 만든 놈도 너고 말  
입니다. 안 그래요?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몸 전체  
가 형성된 거, 몸 전체가 움직여지는 거, 몸 전체  
가 보고 듣고 하는 거, 일상생활에 걸여가고 걸여  
오는 거, 모두가 살고 상태를 만나고 하는 것도 전  
체가 고 한 군데서 하는 거거든요. 한 놈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인공 한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믿고 알 때 '아, 네놈이 전체 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뭐 잘못했다고 할 것도 없고 잘  
안했다고 애걸복걸 할 것도 없고, 또 뭐가 잘했다  
고 좋아할 것도 없구나. 모든 걸 네놈이 하는 거니

까.' 이라고 그냥 한 망치에 때려 버리면 될 거를,  
그냥 거기 팔려 가지고 부둥부둥 열 쓰니 어느 천  
년에 한 방망이로 다 그냥 녹이겠습니까?  
이 도리를 알면 총들을 명실명실 총 겁니다. 아  
마, 그리고 한 나절은 웃어떨 거고 한 나절은 북통  
을 하고 또 울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쓸데없는 책, 쓸데없는 어리석음, 그런 것들에  
끄달리지 말라 이거예요. 한 방에 없앨 수도 있  
니까요. 설사 한 방에 안돼서 또 한 방을 쳤어도  
그게 두 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방을 쳤어도  
한 방이요, 두 방을 쳤어도 한 방이예요.  
하여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나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하는  
것이 분수가 뿔어져 나오듯 사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떤 걸 하든지 그놈이 하는 거지, 딱 놈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체를 다 한군  
데다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한 방으로 되는 겁니  
다. 믿으세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으라구요.  
아무리 잘났어도 남의 뿌리에서 제 나무로 예너  
지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 높으면 높을수록 좀더 낮아지는 것이 부모의 도리

## 부전자전의 이치

**문** 흔히들 부전자전이라고 해서 아들의 성  
격은 아버지를 닮고 또 그 아버지 조부들 닮  
는 것이 보통으로 돼 있는데, 조부의 전생과 아버  
지의 전생, 아들의 전생이 각기 다르리라고 생각  
되고 또 업도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  
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령 포악한 가정 같은데 포악한 성격  
이 그대로 나타나고, 아주 온순하고 덕이 훌륭한  
집안 같으면 그것이 또 그대로 나타나는 게 보통  
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  
까?

**답** 세상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사람 사는  
도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놓을 때도 옷 파는 데는 옷 파는 데대로 죽 모이지  
않습니까? 옷 파는 데다가 강릉 놓고 파는 거 보셨  
습니까? 쇠 파는 데도 못 보았을 겁니다. 쇠로 만  
든 거는 쇠대로 놓고 팔고, 강릉으로 만든 거는 강  
릉으로 놓고 팔고, 금으로 만든 거는 금으로 놓고  
팔고, 은은 은대로 따로 놓고 구리는 구리대로 따  
로 놓고 전체가 똑같은 것끼리, 그 원소가 똑같은  
것끼리 놓습니다. 형체는 다 달라도 만약에 무쇠  
라면 무쇠의 그 원소, 질이 무쇠이기 때문에 무쇠  
로 만든 건 다 바깥에서 뜯게 마련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무쇠로 만든 거라고



그림 · 최주현

# 조그만 거 하나라도 놓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해서 바깥에서 큰일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러나 무쇠는 무쇠끼리 돼 있고, 금은 금대로 돼 있  
고, 놋마는 놋마대로 돼 있고, 옷은 옷대로 돼 있  
고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이러면 잘못하는 것을 보  
는 사람도 그 원소이고 잘못을 하는 분도 원소가  
그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과 저지르  
는 사람이 똑같은 원소인 것이죠. 그렇게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  
든 부부기간에 잘못한 건에 그렇게 만나는 인  
연들은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그 인연으로 인해  
서 꼭 만나거든요. 요 강릉이 잘못했는데 조 강릉  
을 만나는 게 아니라 원소가 똑같은 것끼리 만난  
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만발 말로다가 '너, 이  
놈의 새끼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어찌구,  
나는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이 에미 애비가 불쌍  
하지도 않느냐?' 너는 나가서 들고 있어.' 아, 이러  
고 하니까 그게 한두 번이러야죠.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여

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건데 자주 들면 말 또 들  
고 그러면 듣기 싫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 '차라리 보지 않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든 언짢은 소리든, 좋은 소리  
들은 서로 좋게끔 화목하게 둘러싸고 말하고, 언짢  
은 소리 같으면 아예 멀어 버리세요. 꼭 할 말이  
있으면 남의 말로 돌려 버리세요. "오늘은 내가  
어디 갔는데 글썽 이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는  
데 말아야..." 아,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정이 가  
지 않게 딱 바로 대고 "너 이렇게 해서 되느냐, 어  
찌느냐?" 이러면 나무터라도 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하게, 절대로 바깥으로  
큰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여자나 남자나 큰소리  
가 바깥에 나가면 좋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상스  
럽겠소?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욕을 해대고 "야,  
이놈 저놈, 요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라고 욕  
을 해대고 이러는 가정을 본다면... 또 어떤 사람  
들은 그래요.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을 보고선  
"그랬어, 저랬어? 왔어?" 아, 요라고 말할 할 때는  
인간으로서 그런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어디가  
지나 높으면 높을수록 좀더 낮아지는 것이 부모  
의 도리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  
식들의 심부름을 일일이 해야 되겠소. 통 천 막대기  
처럼, 통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는 시  
골에서 막대기 하나씩 놓고 툽을 찌웠거든요. 그

래서 애들이 부모한테 기대지 않으면 누구한테  
기댁니까? 그러니까 애들의 심부름꾼이지 그런  
위대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름만 엄마 아빠  
로 지었지 그거는 심부름꾼이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그 심부름을 하면서 뜻을 심어 놓고서 자기  
는 또 벗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가 위라  
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회생을 하면서 길렀는  
데...' 이런단 말입니다. 아, 누가 그렇게 기르라  
는 거 길렀나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 했  
어요? 자기 탓이지.

그런데 '너희 놈들은 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  
을 안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아버지나 어  
머니 생각이지 개네들의 생각이 아니라 말입니  
다. 그러니까 개네들의 생각에서 어머니나 아버  
지는 따라 주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가 된  
다면, 따라 주면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폭이 넓  
은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면 그런 집에  
서는 절대로 한테로 나서지 않습니다. 아니, 한테  
로 나선다고 해서 나가는 거만 말하는 게 아닙니  
다. 집에 아무런 것도 하더라도 마음이 나갔다면,  
그리고 마음이 빼놓아줬다면... 참 사랑할 줄 알  
고 측은히 엄마를 도울 줄 알고, 또 측은히 아버지  
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그 자식의 마음  
과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때에 비로소 그거는 심  
부름꾼도 아니고 심부름꾼 아닌 것도 아니죠. 자  
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똑같은 그 마음으로

33면에서 계속

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겁니다. 부부기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간편한 이쁜 것 찾지 말고, 또 남편이 간편한 잘생겼다고 해서 잘생긴 것만 찾지 말고 마음이 잘생긴 것. 진실한 거,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둘부처도 돌아앉거든요. 사랑할 수 있다면 둘부처도 "아이고, 너냐?" 그리고선 사랑하며 돌아서요.

그런데 사랑 안 한다면 둘부처도 딱 돌아앉아 버려요. 또 둘부처한테 장가들려면 그렇게 해서야 될 겁니다. 여기 주인공한테 모든 걸, 사랑도 거기서 나오는 진짜 사랑을 여러분이 맛을 못 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맛을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외의 분들은 참 억울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요. 아, 어디 가서 추우면 '어휴, 춥다. 어서 가자.' 아, 이렇게 해 주고, 또 어디에 불이 붙었으면 '아이구, 뜨겁다.' 하고 막 털어 주고 말입니다. 만져 주고 씻어 주고 참,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도 가도 쫓아가 같이 다니고... 아, 사랑을 그렇게 해 보셨어도 밑까지 씻어 줄 수 있는 그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이제부터라도 모두들 그런 사람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자식기간도 그렇고, 부부기간도 그렇고, 서로에게 물들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자로서의 자부심!

저희 불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고 할 정도로 여유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불자로서의 자부심이 별로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다가도 결혼을 하면서 부인이 타종교인이면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스님,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모두 불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 여기 어떠한 신학회 회원 중에 기독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승진도 안 시켜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죠. '기독교엘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장소는 틀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디다. 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위해서서 나를 위해서서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이 자리가 그 자리니까 아무 자리에 앉았어도 내가 거기 앉았으면 바로 내 부처는 거기 계신 거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몇 식구를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나 여기 오나, 여기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도 아니야. 단 하나 있다면 개종을 한다는 생각도 말고 또는 나는 불교인이라는 생각도 말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지도 말고 한 마디로 "이 장소가 그 장소고 그 장소가 이 장소기 때문에 거기 가 않았어도 내 자리고 거기 가 도랑이고 여기에 앉았어도 내 자리고 도랑이니가 그저 나오라던 나가야죠. 직원인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길 꼭 하니까 또 거기서 많이 배웠구요. 그래서 어느 날 회사



그림 · 최주현

#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우면 상대의 마음도 너그러ूप게 조절할 수 있어

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쪽 하나까 '여보게! 저네는 참 별스런 사람일세. 자네 같은 사람은 내가 끌고 안 끌고도 다 소용없는 짓인가 봐!' 그러고는 승진을 시키더라입니다.

그것만 봐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우면 상대방의 마음도 너그러ूप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하나 와도, 항상 내 집안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거기다가 말져 놓는다면 네 주인공하고 내 주인공하고 틀어 아니니까 네 주인공이 따로 모든 것을 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밟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잘 끌고 가는 거라고 그러합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남편은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나가 돌면서 빛나고도 있다가 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거기다 말리고 관하세요. 그게 돈이 들어서 못하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못하니까? 모두들 제대로 가지 못하니 얼마나 그것이 손해입니까. 그러나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남편에게나 또는 아내에게도 부드럽게 해 주고 다복하게 사심으로 써 돈이 달아나다가도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조남의 집에 들어갔다가간 싸우는 중간에 꺼서 내가 못살겠으니가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고 달아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한 집이 돈도 화

목하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좇아다 나지 말고 돈을 끌어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 공부 열심히 해서 불자로서의 자신감도 가지면서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당한 집안에서, 그래도 부모 슬하에서 당당하게 공부하고 당당하게 이, 참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서 당당히 여기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젊은 사람들을 기죽이지 마시구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사람들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애로점이 있으면 거기다 모두 한번 의뢰를 해 보고 부탁을 한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심성과확입니다. 생활과학이구요. 우리 생활과학을 우리 자신으로써 역력하게 풀어볼 수 있는,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실천과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생한 것처럼 후손들을 또 고생하게 하지 마시고 어디 나가서 서더라도, 돌 위어 서더라도 살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돌아서서 뼈저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고 위로는 푸른 빛을 갈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엄은 어디로부터 생겼는지요?

엄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자리와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까?

지수화풍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엄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으로서의 우리가 돌아가면서 일체 모든 게 전부 공했기 때문이죠.

공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것을, 우리가 몸으로만 수행을 하고, 또 일심에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만 모든 것을 놓았을 때에 일심으로 들어서 일심으로 나게 할 때에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또 빨라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군데로 몰아서 할 때 내 일심은 없었으면 편안하고 아주 똑바로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행이 되겠지만 정작 급한 일이 닥치거나 활용을 해야 할 때에는 한 판이라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딱딱하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놓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놓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이 세상

에 몽땅 놓았기 때문에 몽땅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몽땅 놓지 않는데 몽땅 얻을 수가 있나요? 얻는다는 것은 모든 걸 걸릴 수 있다는 걸, 놓는 데에 여러 가지가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본래 놓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놓고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을 하면 벌써 말한 이전이 돼 버리기 때문에 본래 놓고 가는 겁니다. 한 발짝 떼어 놓았다면 떼어 놓은 것이 벌써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이 되는 거죠. 내 한 발짝 떼어 놓기 이전이 된다구요. 그래서 주인공은 전체 돌아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룰하여 이룰을 붙인 거고, 엄식이라 하는 것은 개별적인 하나의 문제를 사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놓는다는 거하고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그것은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놓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놓아라, 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놓으라는 소리는 자기가 포기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육신이 깰달린다거나 또는 집착에 깰달린다거나 애정에 깰달린다거나 또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일상 생활에 모든 게 깰달리니까 본래 그냥 놓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놓아라!' 이런 소리를 또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본래 놓고 가는 거란 말이죠. 본래, 사람들이 그걸 놓지 않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끊으려고 하면 더 못 끊는 법입니다. 끊는 다, 끊는다 하면서 못 끊는 거죠. 왜? 끊는다 하고 끊으려고 하니깐 못 끊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그냥 놓고 가는 건데 뭘 끊어라 어쩌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녹이고 하는 것을 놓아라, 본래 그냥 놓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놓는다면 그냥 율광로에 들어가서 녹아 버리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부처님 조성 모연문

본 암자 내원암은 지리산 도솔봉에 위치하며 대한 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산내 암자로 창건연대가 신라 경덕왕시대 8원 81암자 중 하나였던 내원암이 6.25사변을 겪으면서 내원암에 거주하기 어렵도록 쇠락소멸 되어 터만 남은 것을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산승이 복원을 발원하여 현재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중입니다.

하오나 본승의 원력이 부족함에 부득이 도솔봉 내원암에 모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불모 시주님과 법당에서 사용할 법당중 조성 불사 인연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심 깊은 많은 불자들의 동참 인연을 기다립니다.

※ 불구와 가전 및 일체 생활용품 등도 보시를 기다립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화엄사 산내 도솔봉 내원암 임주 보광당 지암 합향

연락처 전 화 061-783-0095  
휴대폰 017-611-0096

● 온라인 : 우체국 601625-02-021246  
국민은행 576-21-0308-915  
예금주 : 장훈섭(지엄스님)

## 불교신주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인생이게요 부처님 가르침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게요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사랑하는 사람 이자원 씨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래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 영혼 잠 못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앉아

원장 이영숙 합향

운 받음 지새워 울고  
못해 그리움 마음  
그래 찾아 가고 싶어

■ 대우, 초·재운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애은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음질,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록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http://www.yukosound.com)

##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률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심장마비·협심증·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은사 약력 -

- ▶ 1941년 2월 5일 경계 삼주 출생
- ▶ 1961년 함성(충청) 대학교 약학과 졸업
- ▶ 1963년 함성(충청) 약대수 졸업
- ▶ 한방(대안의학) 박사 과정수료, 체중조절의학 연구원 한방(대안의학) 박사 연구실 책임연구원
- ▶ 저서 : 21세기 인생의 지혜와 과학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